

▣ 입시사교육 경쟁의 핵심원인, 서열화 해소를 위한 4대 공약①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입학이 허용되는 ‘대학입학보장제’를 통해, 입학생 성적에 의해 대학의 서열이 정해지는 현실을 개선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대입제도의 변화가 있었지만, 새로운 대입제도는 매번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거나 심지어는 상황을 악화시켜왔다. 그 이유는 대입제도는 계속 변화했지만, ‘치열한 경쟁’과 ‘충충한 선별에 의한 선별’, 그리고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굳건한 대학서열’이라는 대입제도의 기본 틀과 환경은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대입제도 철학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은 현재의 ‘경쟁’과 ‘선별’이라는 대입제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리고 ‘자격기준 충족’과 ‘입학보장’이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이 현재의 대학서열에 안주하지 않고, ‘잘 뽑는’ 경쟁이 아니라 ‘잘 가르치는’ 경쟁에 나서게 됨을 의미한다.

■ ‘대학입학보장제’ : 일정한 내신 또는 수능 등급이면 학생들을 더 이상 경쟁시키지 않고, 희망 학부의 대학 입학을 보장

□ 수험생에게 고통을 주었던 복잡한 전형을 하나로 통일, 대학 정원의 70%를 선발하는 수시 전형에서는 일정한 내신을 갖춘 학생에게, 30%를 선발하는 정시에서는 수능 일정 등급을 갖춘 학생에게, 자신이 원하는 2개의 학부와 대학을 1지망부터 6지망까지 지원하면 대학입학보장제를 실시하는 대학들 안에 있는 공동의 입학관리센터에서 대학을 배정한다.

□ 대학입학보장제는 모든 대학들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 방식을 통해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하면서 사립대학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1단계에서는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학입학보장제를 실시하는 대학을 전국적으로 집중 지원 육성(세계적 수준의 학문경쟁력을 갖는 연구중심대학 7~10개, 작지만 특색 있는 ‘강소 교육혁신대학’ 40~50개)하고 대학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